

한국교회의 재정지출과 사회적 기여

천상만 (한국생산성본부 교수, 중앙성결교회 목사)(경제/경영 2-2)

논문초록

한국교회는 현재 대내적으로는 출석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도가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비기독교인과 비판적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가 자기중심적 성장만을 추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어 한국교회의 자성이 요구되기도 하다. 현재 한국교회가 헌금을 통해 얻는 수입 총액은 연간 총 6조7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한국교회가 교육과 선교, 구제 목적으로 교회 외부의 교육기관, 선교기관 및 선교사 후원, 사회복지 등을 통한 사회적약자 배려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출액은 전체 헌금수입의 20%에 이르는 연간 총 1조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교회 외부로 흘러나가는 사회기여적 재정지출액은 2009년 정부예산의 0.48%, 국민총생산(GDP)의 0.13%에 이르는 규모이다. 샘플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재정지출 연구에서도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지출 금액과 구성비는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한국교회는 천주교나 불교에 비하여 기관 수 및 재정규모에 있어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사회적 기여가 약하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내부 인건비, 유지관리비, 건물 신증축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출 구조에서 선교, 교육, 구제 등의 대외적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교회, 교회재정, 헌금수입과 지출, 재정투명성, 교회갱신, 기독교의 사회기여

I. 서론

교회에 대해서 말도 많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교회가 어떠하느니 말하는 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극단적으로 기독교를 욕하고 배척하는 앤티(Anti) 기독교사이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예수는 좋은 데, 교회는 싫다고 말한다. 이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싫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예 반기독교사이트에서는 극단적으로 기독교 자체를 매도하기 조차 한다. 반기독교주의자들은 한국기독교를 개독교, 목사들 먹사로 통칭하면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인과 교회에서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거부로까지 나가고 있다. ‘다빈치코드’가 그러했고 최근에 나오는 반기독교적인 영화나 문화활동들을 보면 그러한 성향이 늘어나고 있다.

특별히 이명박,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장로가 대통령이 된 시기일수록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더 욕을 먹는 것 같다. 최근에는 불교계가 현 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해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종교간 갈등마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은 한국교회가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았던 해였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런 저런 방송물들을 많이 내보낸 한 해이기도 하였다. 특히 아프간 피랍사태와 이랜드의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한국교회는 홍역을 치루는 한 해가 되고 말았다. 그러더니, 2008년에 들어와서는 목회자들의 세금 납부 문제를 문제 삼아 제작한 MBC의 ‘뉴스후’가 대형교회 몇몇 목회자들을 타겟으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었다. 나아가 SBS에서 방영하였던 ‘신의 길, 인간의 길’은 기독교회가 예수라는 인물을 신화화시킨 것이라는 내용을 방영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앞으로 방송계에서 교회와 목사, 기독교를 얼마나 더 비판적인 소재거리로 삼을지는 알 수 없다.

10~20대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는 막연한 거부감도 늘어나는 것 같다. 온라인에 익숙한 이들에게 반기독교사이트가 범람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개신교를 대표적인 이기주의 집단으로 몰면서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로 특정 포털의 토론방을 도배하다시피 한다. 특히 아프간 피랍 사태시 샘물교회의 선교 방향과 선교여행 참여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비난은 기독교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랜드가 이익의 10%는 선교 사업에 기부한다고 하면서도, 내부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인력파견회사에 넘기는 식으로 고용을 해지시키는 점은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기업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주장들을 하였다.

비판론자들은 대형 교회들은 부자 중심이고 세속적 축복만을 외친다고 말한다. 한국교회가 무신론적 유물사관에는 저항하면서도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죽고나서 천국 가는 것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당장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한다. 담임목사직 세습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사학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 등에서도 기독교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좌파적 민족주의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미국 지향적이다!!”라는 비판을 한다. 그리고 “왜 한국기독교는 보수 우익의 자리에만 계속 서느냐?”고 말한다. 일부 민족적 사회주의적 입장을 가진 이들은 해방 후 교회 행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교회는 친일파, 지주계층의 이익을 대변했다고도 말한다.

II. 본론

1. 한국교회의 위기의식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글로벌리서치(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교회에 충격적이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에서 평균 점수가 2.55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9년에 실시한 연속 조사에서 기독교의 신뢰도는 평균점수가 2.82점으로서 전년에 비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응답자의 18.4%에 불과한 반면,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33.3%, ‘불신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48.3%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는 ‘신뢰한다’의 비율이 19.1%, ‘불신한다’가 33.5%로 나타났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에 대한 질문에서 2008년에는 가톨릭(35.2%), 불교(31.1%), 개신교(18.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에는 가톨릭(33.7%), 개신교(28.0%), 불교(26.4%) 순이어서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약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

한국 기독교의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도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실시한 2005년 기준의 종교인구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전체인구의 18.3%으로서 861만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독교인 수는 1995년에 비해서 1.4%p, 인구 기준으로는 14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주교는 총 514만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0.9%인데, 95년에 비해 4.3%p, 인구기준으로는 219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교의 경우는 총 1,072만명으로서 총인구대비 22.8%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에 비해 0.4%p, 인구 기준으로 40만명 증가한 것이다. 2) 이 조사 결과는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최초의 공식 통계라고 할 것이다. 이 결과를 근거할 때 1995년부터 2005년 까지 과거 10년간 기독교인 수는 감소한 반면, 천주교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불교는 약간 증가 내지 정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교회의 유별난 성장과 쇠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중이 한국에 와서 받은 인상 중의 하나가 비행기에서 바라본 밤 하늘의 수많은 십자가 모습이라고 한다. 심지어 내국인들 중에도 한국에 웬 교회가 그렇게도 많으나면서 새삼스럽게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밤 하늘을 수놓으며 끝도 없이 펼쳐진 십자가의 향연, 아마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이런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기독교 성장세에 놀라워한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해 개신교가 전래된 이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내 보낸 나라, 장로 대통령을 두 번 께로 탄생시킨 나라가 되었다.

동북아시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관심을 가지는 내·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 나라의 종교 역사에 대해 연구하는 이들의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어떻게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더 융성해졌느냐는 점이다. 기독교 전래 과정에서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과 일본에 더 오랜 기간 선교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떻게 한국이 유독 기독교가 흥왕한 국가가 되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답변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점은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18세기나 기독교가 전래

된 19세기 말은 조선왕조가 몰락해 가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선의 정신 근간이었던 유교가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왕조가 쇠락하면서 유교로서 대표되었던 국가 이데올로기 체제 전반이 무너지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결국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암울한 시기에 전래된 기독교가 무너지는 기존의 정신세계에 새로운 대체 가치로서 쉽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근대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제국주의화되자 일본적 국가주의, 집단주의가 기독교 유입에 장애가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도 서양 제국의 침탈에 대한 저항이 강해지면서 기독교와 서양제국주의를 연계 짓는 인식이 강하였고, 전통적인 중화주의, 공산주의가 기독교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이 무너지고 일본의 식민지화 된 점이 오히려 기독교의 성장에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25를 거치면서 반공의 색깔이 강했던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대립했던 점, 미국 선교사 및 기독교와 연계되었던 점이 한국의 기독교 성장을 불러온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장하였던 한국기독교는 일제시대에는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 서는 역할을 하였다. 암울한 식민지 시대에 민족에게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는데 기여하였다. 교회의 존재는 전후의 폐쇄한 시대에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는 접착점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경제 발전에 매진하였던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민주화를 위하여 옥고를 치루며 독재 정권에 항거한 선봉적 그룹이 교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70~80년대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려는 산업화 과정에서 기독교는 축복의 복음을 통하여 경제 성장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시대 시대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들면서부터 한국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라기보다 뭔가 사회에서 밀려나는 위치가 되지 않았는가 싶다. 이러한 인식은 진보, 보수 양편 모두에서 인정하는 점이 아닌가 한다. 우선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한국교회에는 이미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자 한국 교회에는 교회 성장의 정체와 쇠퇴, 대형교회로의 쏠림 및 중소형 교회의 위축, 교회 내 젊은층의 감소, 교인들의 노령화, 비기독교인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교회 이미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외형 중심의 교회성장이 여러 문제들을 불러왔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부 이단적 교주 인물들이 기독교를 등에 업고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단성 교주들은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입혔다. 몇 몇의 미꾸라지들이 물 전체를 흐린다는 식으로 한 두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기독교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천주교는 내부적인 질서가 있어서인지 일관된 한 목소리를 내는데 반해 기독교는 보수와 진보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내는 얘기들이 제각기라는 점도 좋지 않게 보이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다른 종교인들은 아랑곳 하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게 전도하는 것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 이외에도 건강과 부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교회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다. 물론 기독교 자체를 안 좋게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싫게 보이고 흠 잡을 겨리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2008년에 종교단체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논쟁이 언론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촉발된 적

이 있었다. 그간 종교단체나 종교법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 내지 불문율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부가세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면제 내지 감세 혜택이 주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왜 종교단체나 종교인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돈을 얼마나 현금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3. 한국기독교의 재정 규모

한국기독교의 연간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한국교회는 통례적으로 1인 평균 연간 현금액을 100만원으로 잡아 왔다. 이는 1998년에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이 한국갤럽을 통해 전국의 2천명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서도 나타난다. 응답자 중 현금을 하는 사람들이 월평균 83,000원, 연평균 996,000원의 현금을 한다고 응답한 점과도 거의 일치한다.³⁾ 한국기독교인 전체 인구인 861만명에 일인당 연간 일백만원을 곱할 경우 한국교회 전체 현금 규모는 8조 6,1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숫자는 부풀린 규모가 될 수 있다. 861만명이라는 기독교인 인구는 19세 미만의 미성년 인구를 다 포함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인 연평균 현금액 1백만원도 성인교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대계상 소지가 있다. 861만명 중 성인 기독교인 규모는 19세 이상 인구비율인 77.9%를 적용하면 670만명이 된다. 따라서 성인 기준으로만 계산할 경우 현금총액은 6조 7천억원이 된다. 다른 근거 자료를 보면, 통계청이 조사한 전체 종교현금총액 6조 2,100억중에서 기독교비율인 73%를 적용할 경우 4조 5천억원 규모라는 추산도 있다. 이는 통계청의 2006년 전체 종교현금 조사 자료에 과거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인의 종교현금 비율로 추정한 73%를 곱한 수치이다.⁴⁾ 그러나, 이 경우에 전체 현금액은 실제 조사에 근거한 만큼 신뢰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비율을 얼마로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현금 규모에서 십일조를 강조하는 기독교에 비해 천주교와 불교는 현금액이 작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독교 관련 교육기관, 선교단체, 방송국,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기부금도 적지 않은 규모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연간 재정규모는 작게는 4조 5천억원에서 많게는 8조 6,1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액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면 중간 차원에서 성인 기독교인 1인 평균기준으로 연간 현금액 1백만원 X 성인 기독교인구수 670만명으로 6조 7천억원 규모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6조 7천억의 현금규모는 2009년 한국 정부의 재정 예산 273조원의 약 2.5%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개별 교회의 재정 규모로는 연평균 성인 출석교인 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면 될 것이다. 물론, 성인 1인당 연평균 현금액 100만원은 교회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보다 훨씬 높은 서울지역의 교회도 있을 것이나,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교회는 1인 평균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통해 모아지는 현금의 내역을 살펴보면 십일조를 포함한 건축, 감사, 선교, 장학, 구제 등의 각종 현금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 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기부금, 자선금, 구제비 및 선교단체, 신학대학, 기독교사회복지기관 등 기타 기독교관련 단체들을 통해 조성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는 아직도 관련되는 통계나 조사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4. 한국교회의 재정수입 내역

현재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5만여개 교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교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헌금에서 온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00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8개 샘플 교회 자료에 근거할 때 재정수입의 89.8%가 헌금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10.2%는 자산 처분수입, 임대 수입, 이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금 중에서는 십일조 헌금이 전체 수입의 56.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일반 헌금, 감사헌금, 건축 헌금, 절기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개 한국교회의 수입구성 현황>

구분	비율(%)
1. 십일조헌금	56.58
2. 일반헌금(주일, 주정, 월정헌금 등)	9.54
3. 감사헌금	9.34
4. 자산, 부채관련수입(자산처분 및 회수 등)	8.41
5. 절기헌금 (성탄절, 부활절 헌금 등)	5.77
6. 건축헌금	5.42
7. 기타수입 (이자 수입 등)	1.33
8. 기타헌금 (기타 다양한 명칭의 헌금)	1.21
9. 선교헌금	1.16
10. 기타목적 헌금 (특정 목적의 헌금)	0.57
11. 수익사업수입 (임대료 등)	0.48
12. 구제헌금	0.19

자료 : 한국교회 재정운용 실태조사 결과, 건강한국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2006.8.10

상기 자료에 근거할 때 한국교회 재정수입의 과반 이상은 십일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1998년 전국의 성인 기독교인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32.8%가 온전한 십일조를 한다고 응답하였다.⁵⁾ 그런데 온전한 십일조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신이 받은 소득의 10%를 교회에 내는 것이다. 소득을 총소득으로 볼 것인가,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난 이후의 순소득으로 볼 것인가가 한 때 논란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인의 경우 조지 바나(George Barna)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듭난 기독교인 열명 중 한 명만이 십일조를 드린다고 한다.⁶⁾ 지역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십일조를 내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교회와 관련하여 내는 헌금 비율은 개개인마다 다양하다고 보여진다. 어떤 이들은 십일조가 아니라 십분의 이 내지 삼까지를 교회 및 선교와 관련하여 헌금을 하기도 한다.

한국교회의 헌금 양태를 보면 교인들의 헌금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큰 변화는 개인이 출석하는 지역교회 중심으로 드리는 헌금 납부처에서 여러 곳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한국 기독교에서 주일에 지역 교회라는 건물 중심으로 모이던 신앙생활 양태에 변화가 왔기 때문이다. 이미 직장 및 지역교회 외의 기관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경공부가 활성화 된지 오래 되었다. 십자가를 단 지역교회 건물의 안과 밖을 기준으로 교회의 영역과 경계를 구분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교회가 특수 분야에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수많은 전문 분야의 선교단체들이 생겨났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출발한 선교단체들은 이제 그 범위가 해외선교, 전문인 선교, 교육, 방

송, 상담, 구제 등 전 분야에 걸쳐 확대되어왔다. 오늘날 한국에는 수많은 선교단체가 지역교회와 공존하면서 사역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서로 간 관계도 상호 협력, 보완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때로는 양자 관계가 경쟁 내지 갈등 관계로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헌금을 내야 할 교회의 기준이란 무엇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교회가 한 군데만이 아닌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선교단체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도 따른다. 자신이 속한 지역 교회에 내는 십일조만이 온전한 십일조인가? 아니면 각종 선교단체나 선교사들, 기독교방송국, 사회복지단체, 또는 자신이 돕고 있는 개척교회 및 농어촌교회 등을 후원하고자 내는 헌금은 자신의 지역교회에 낸 십일조 외에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것인가? 지역교회 중심으로 십일조를 해석하려는 목회자들은 당연히 자신이 소속한 교회에 먼저 온전한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즘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이 어디 한두 군데인가? 수없이 많은 기독교관련단체가 헌금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속해있는 지역교회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지역교회에는 선교헌금, 장학헌금, 감사헌금 등 다양한 명목의 헌금이 있다. 타 선교기관이나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에 헌금을 내고 나서 목사님과 협의하여 그곳으로 헌금이 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개교회 재정 확보 중심으로 생각하는 재정위원들 입장이 강해지면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게 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지역교회 목사님과 상담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신앙에 맡기는 실정이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은 지역교회만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부분적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5. 한국교회의 재정지출 내역

한국교회의 헌금을 지출내역 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은 교회 관련한 종사자들의 인건비 부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목사를 포함한 교회관련 교역자 및 직원들의 인건비가 해당될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에는 10만여명의 목사가 목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도사, 강도사 및 교회 직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관련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파트타임까지 포함하여 개교회 평균적으로 4명을 잡는다면 20만명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교회 규모가 작거나 농어촌교회와 같이 재정 자립이 어려운 교회일수록 인건비는 교회 재정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인건비에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나 사례비 뿐 아니라 상여, 사택지원비, 자녀교육비, 복리후생비, 목회연구비, 교통통신비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8개 교회를 대상으로 지출내역을 분석한 자료의 계정항목에서 사무관리행정비와 사례비로 나타난다. 특히 재정규모가 작은 교회일수록 사례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작은 교회의 특징 상 재정 지출의 30-40%가 목회자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회건물이나 시설 관련 지출이다. 여기에는 교회 건축과 관련한 지출 및 건축 관련 대출 상황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다. 이 부분은 28개 교회의 경우에서 부채상환금과 자산취득, 적립금으로 나타난다. 부채상환과 관련하여 특히 최근에 교회 건축을 하였거나 무리하게 건축 예산을 잡은 경우 이 비용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회가 많다. 심지어는 건축을

해 놓고도 대출원금 상환이 계속 늦추어지거나, 이자 지불조차 허덕이는 경우도 있다. 교회 건물 관련한 지출에는 교회 본 건물로서 예배당, 교육관, 사택, 기도원, 묘지 등이 해당되며, 최근에는 도심 교회의 경우 주차장 관련 부지나 주차시설 마련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기존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도 적지 않다. 시설 개보수, 냉난방비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일상적인 관리비나 경비들이 지출 과목의 주요 부분이 되고 있다. 식당운영비, 음향 및 방송, 정보기기 관련비용,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교회 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중대형 교회의 경우 이런 지출은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주보 등 인쇄물 제작비, 강단 꽃꽂이, 성찬식 비용 등은 예배 관련한 필수적 비용이다. 이외에도 부흥회, 사경회 등이 열릴 경우 초청 강사에 대한 강사비도 적지 않은 규모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단의 유지발전을 위해 지출되는 총회 및 지방회 관련 지출도 있다.

<28개 한국교회의 지출구성비 현황>

단위 : %

지출항목 분류	전체	그룹1 (수입규모 1억 미만)	그룹2 (1억-2억 미만)	그룹3 (2억-5억 미만)	그룹4 (5억-10억 미만)	그룹5 (10억 이상)
해당 교회수	28개	3개	4개	8개	5개	8개
사무관리행정비	22.28	15.42	21.67	26.2	23.89	21.92
사례비	16.91	40.14	29.52	25.12	25.16	15.29
부채상환금	11.42	8.88	0.39	0.21	1.3	13.27
자산취득, 적립	10.23	7.89	10.81	5.57	7.59	10.76
선교비	10.67	5.89	4.06	8.46	5.79	11.38
교육비	5.92	2.9	5.8	9.73	9.04	5.41
관리비	5.25	5.79	7.56	2.22	5.78	5.37
예배, 목회비	3.37	2.96	4.95	4.43	5.98	3.05
구제비	3.11	0.23	1.98	3.55	3.67	3.07
기타지출	2.98	0	0	7.03	0.01	3.02
금융비용	2.51	0	4.98	0	1.23	2.75
예비비-지출	1.78	0	0.25	0.34	0.17	2.05
행사비	1.42	0.65	1.94	1.77	3.21	1.24
외부지원	0.99	5.3	2.78	3.8	3.93	0.49
전도비	0.78	0.68	1.31	1	1.92	0.67
친교비	0.4	3.28	1.99	0.58	1.35	0.26

자료 : 한국교회 재정운용 실태조사 결과, 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2006.8.10

위에 열거한 인건비, 건축 및 시설유지비, 일상 경비, 예배관련 비용들은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인 셈이다. 이외에 교회사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들어가는 교육 및 선교 관련 지출이 있다. 교육관련 지출은 교회학교, 청소년부, 각종 교회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러한 곳으로의 지출 규모가 클수록 교회교육의 질적 수준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교회교육비가 교회 내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면,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교회 외부의

신학교 지원, 목회자 재교육 지원비 등은 교회 외부 교육기관으로 돈이 흘러가는 부분이다. 이와 아울러 선교관련 예산이 있다. 이는 선교사 지원금, 선교 기관 및 국내외 미자립 교회 지원금, 해외 교회 개척지원금이다. 선교에 열정을 가진 교회일수록 선교관련 예산 규모가 크고 이 부분에 많은 돈이 지출된다. 이외에 최근 한국교회에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구제관련 비용이다. 28개 교회의 경우에는 구제비가 평균 3.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제비는 교회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 1억원 미만의 작은 교회에서는 구제비 비중이 0.23%에 불과하다. 이는 소규모교회일수록 구제비 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올수록 많은 중대형교회들이 노숙자 및 결식자들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유아원 등 지역아동시설, 장애인 및 소년소년 가장 등에 대한 사회복지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규모가 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는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교육, 선교, 구제 등에 들어가는 지출은 교회 유지나 내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고 교회 외부로 향하는 지출이다. 반면에 인건비, 건축비, 일상 경비는 교회 내부로 향하는 유지성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선교, 구제비는 교회 사명 및 사역과 보다 직결되는 지출이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인건비, 시설비, 일상 경비 등의 내부지향 지출이 전체 재정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이다. 황호찬·최현돌의 1996년 연구에 의하면 한국교회 평균적으로 볼 때 교회 총예산 중 15% 정도가 선교, 구제, 봉사 등의 대외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85%가 대내적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⁷⁾ 반면에 2006년에 실시된 28개 교회에 대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선교비, 교육비, 구제비가 전체의 19.7%로 나타났다. 물론 이는 28개 교회에 한정된 평균적인 수치이지만, 황호찬·최현돌의 연구가 1996년에 이루어졌던 데 반해 2006년 조사에서 교회의 외부지향적 지출이 15% 선에서 20%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선교현금과 구제현금 수입분석을 근거로 한국교회의 선교와 구제비가 총지출의 1.5%에도 미달한다는 비판을 하는 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지출 내역은 당연히 교회의 지출자료를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산에 근거할 때 한국교회의 현금 총액을 6조7천억원으로 본다면 교육, 선교, 구제비 명목으로 교회외부로 흘러가는 대사회적 지출총액은 1조3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2009년 정부지출 273조원의 0.48%에 이르는 규모이며,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0.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6. 한국교회 재정지출의 사회복지 분야 기여

한국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 봉사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전체적으로 통계화되지 않고 한국교회가 제각기 활동해서 그렇지 실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기윤실이 2010.1.15에 발표한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섬김보고서’에 의하면 종교별 사회복지법인수와 사회복지기관 수에서 기독교가 타종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분야의 법인수에서 기독교는 총194개의 사회복지 관련법인을 운영하는 데 반해 불교는 104개, 천주교는 58개로 나타났다. 실제 사회복지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타종교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독교는 188개소, 천주교 49개소, 불교 49개소로 나타났다. 노숙인시설을 보면 기독교가 54개소, 불교 8개소, 천주교 5개소이다. 그리고 전국 3,013개소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중 기독교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1,601개소에 이르러 53.1%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⁸⁾ 교회신뢰네트워크의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을 보면 전국의 사회복지관 378개 중 교회 등 기독교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곳이 133개로 나타나 기독교가 타종교보다 사회복지분야에 더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다. ⁹⁾

그러나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개체수가 아니라 재정 규모로 보면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손병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법인 수로 종교계의 사회복지분야 점유율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즉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설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시설 수로는 낮게 나타나는 천주교, 불교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산하에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 자체로는 절대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특별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지원금의 종교별 규모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천주교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 기준으로 기독교계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 금액은 476억원인데 반해 천주교는 446억원, 불교는 1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독교의 사회복지시설이 교단별, 교회별로 분산되어 시설숫자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천주교에 비해 개별 시설별 평균 지원금 규모는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교별 지원금 규모(2008)>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종교계					일반 (비종교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소계	
금액	275,579	47,601	44,590	13,228	2,090	107,509	168,070
구성비(%)	100	17.3	16.2	4.8	0.8	39.0	61.0

자료 : 손병덕, ‘기독교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목회와신학 2010년 4월호, p.201

기독교인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기여도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봉사 측면에서도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목회와 신학이 전국 2천명 성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원봉사 경험자의 종교 배경으로는 기독교 33.2%, 천주교 12.8%, 불교 23.6%, 비종교가 29.6%로 나타났다.¹⁰⁾ 한국민 전체 중 기독교인 비율이 18.3%임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은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에 비해 자원봉사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태안의 기름유출 사고로 부쩍 늘어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독교인의 참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사회 구제활동에 무심하다는 공격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교회의 지역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미준의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중 인근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4.6%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알고 있는 경우도 불우한 이웃돕기 차원의 봉사에 한정되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¹¹⁾ 이는 결국 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는 오히려 주님의 하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 6:3)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교회에는 수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외부의 부정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7. 재정운용과 관련된 주요 이슈

1) 투명성 문제

한국교회의 재정 운용 투명성에 대한 일반 기독교인들의 인식은 긍정적인 부분이 높지만 아직도 투명하지 못하다고 보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회와 신학이 2008년에 500명의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재정의 수립, 집행, 보고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재정 투명성 질문에 대해 86.3%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교회의 예산 및 결산 내용은 전 교인에게 공개되며, 원하는 교인은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라는 재정 열람 자유에 대해서는 76.9%가 긍정적 답변을 한 반면, ‘우리 교회는 현금 액수를 주보나 인터넷을 통해 매주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현금 공개에 대해서는 41.4%만이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교회재정 전문가로 알려진 세종대 황호찬 교수는 극히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재정운용 정직성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회계 집사나 장로가 교회 재정을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담임목사 역시 주어진 권한 내에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황 교수는 재정투명성 문제는 교회의 담임목사의 리더십 문제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본다. 즉 아무리 재정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절차를 수립하더라도 리더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재정 전반에 걸쳐 불신하게 된다고 한다. 반대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비록 미비점이 있더라도 리더를 신뢰하면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신뢰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정직하게 운영된다 할지라도 외부인들이 느끼는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외부와의 채널이 막혀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외부의 반기독교 단체들이 실상을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선전하는 점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2) 건물 위주의 재정지출 문제

교회 비판론자들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할 때 들어가는 얘기 중 빠지지 않는 것이 교회가 건물만 화려하게 세우고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중세에 교회가 부패한 것은 돈 거두어서 교회를 살찌우거나 자기 왕국 키우는 데로만 가니까 중세 교회가 몰락한 것 아니냐는 논조로 말한다. 한편 맞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좋은 예배당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 건물 확보는 엄연한 현실이다. 건물이 낡고 부족해서 불편한 데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할 수 없지 않은가? 특히 오늘과 같은 문화시대에는 예배당 시설에 음향, 방송, 조명, 편안한 의자, 경건하면서도 예술적 인테리어, 침단의 난방 설비, 유아를 편리하게 돌보는 것을 최대한 배려한 자모실 등이 따라주어야 한다. 그러니 예전에 요구되던 예배당 수준으로는 사람들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예배당을 수준 높게 업그레이드 하는 데만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실정이다. 예배당만 그런가?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한

교육 공간 마련도 필수적이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와 같이 다양한 연령 계층 아이들이 동일 시간대에 예배드리려 한다면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소규모 예배 공간이 요구되어 진다. 이외에도 성가대 연습실, 다양한 소그룹을 수용할 수 있는 소모임 공간, 상담을 위한 상담실 등 교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하드웨어만 해도 끝이 없을 지경이다.

또한 마이카 시대에서 교회 경쟁력 핵심은 주차장이라고 한다. 많은 교회들이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일에는 주변의 다른 부지를 활용한다손 치더라도 평일에 어느 정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려면 주차장 부지가 안 딸릴 수 없다. 교회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주차장 확보 및 관리이다. 대형교회들일수록 교인들이 제일 많이 참여하는 주일 예배 시 교인 차량을 어디에 주차해야 할지가 고민이다. 대형교회들은 자체 주차장 건물을 지어 수백 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일 예배시 주차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교회 주변 도로 공간에 교인들이 주차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지역 주민과 예배에 참여한 교인들 간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된다. 나아가 주차 문제가 커지면 주민들은 교회에 대고 “왜 자기네들 예배 보러 오는데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한다.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치닫다 보니 ‘교회 다니는 것들!’ 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 교회 시설 공간에는 주일이나 특별 행사가 있는 날 외에는 비는 경우도 많다. 이 때 교회 건물 활용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시설 공개를 하지 않는 것도 시비거리가 되기도 한다. 평소에 노는 주차장 부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활용토록 하면 안 되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꼭 교회 주변 주민들에게도 주차비를 받아야 하느냐며 문제 삼기도 한다. 교회 주차장과 유료 주차장이 뭐가 다르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가까운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교회가 무료로 시설을 개방하면 주차장 업주들은 영업을 방해한다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한국교회가 비기독교인과 부딪히는 주요 사안으로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민들과의 민원 갈등을 들 수 있다. 교회 건물 증개축 시 주변 주민들은 소음, 분진 등의 이유로 교회 건축에 따르는 불편한 사항들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 그야말로 교회도 일반 상업용 건물과 같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교회도 비즈니스 아니냐고 반문한다. 또 교회 시설물을 왜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한다. 세상을 섬겨야 하는 교회로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 노숙자 등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쉼터의 장소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의 유지와 안전을 고려하다 보면 외부인에게 시설을 무제한 개방할 수만 없는 측면도 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 경우도 겨울철이면 노숙자들이 밤 늦게 들어와 교회 내 어느 방에 들어가 잠을 자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찰 집사님 입장에선 밤이면 몰래 숨어들어오는 노숙자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그냥 자고 나가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난방기 사용 등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찰 집사 입장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게 된다. 그러면 평소에 교회를 고깝게 보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되고 외부인에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식이라는 얘기를 한다.

3) 내부지향과 외부지향 구성 문제

아직도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인건비, 건축 및 시설유지 관련 재정에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쓰고 있다고 보여진다. 작은 교회일수록 교역자 및 직원들의 인건비에만 재정의 반 이상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러니 교회 재정의 대부분이 결국 교회 자체의 존속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에 쓰여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교회 내부의 유지관리에 돈을 쓰기보다 외부로 돈을 흘러보내는 교회도 많다. 개별 교회마다 선교, 교육, 구제에 쓰는 재정지출이 전체 재정에서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세상의 비판론자들이 선교, 구제, 교육관련 지출이 교회 유지관리비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교회에 대해 더 이상 부정적 비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 외부로 흘러나가는 비용이 전체 재정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재정을 집행하시는 분도 있다. 예산에 맞추어 재정 집행을 해야겠지만, 연말에 돈이 남아서 차기로 넘어가는 자금 유보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가지신 목사님도 있다. 즉, 한 해 들어온 수입은 반드시 그 해 안에 선교, 구제 등의 용도로 지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다음 해의 재정은 다음 해에 채워주실 줄 믿고 여유가 생긴 돈은 교회 외부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교, 교육, 구제비가 늘어날수록 교회 사역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재정 지출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1. 외부지향적 지출 확대

교회가 영적 생명 보다는 건물이나 돈을 부각할수록 교회는 세속화되어 간다. 우리는 교회 성장 기준을 교회의 물적 성장 측면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그간 한국 교회는 예배당 짓고, 좀 더 성장하면 교육관 짓고, 시설 리모델링하다가 더 성장하면 기도원 짓고 묘지 구입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여 왔다. 그래서 교회 건축하는데 목사와 교인들 에너지가 모두 투입되어 왔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할 것이다. 요즘은 교인들은 개척교회에 와서 섬기려 하지 않는다. 아예 자체 건물을 가지지 않은 상가 내의 교회나 지하건물에 세들어 있는 교회에는 가는 것조차 않으려 한다. 교회 건물이나 시설 수준으로 그 교회의 영적 능력까지 같이 평가한다. 그러니 목회자의 기도 제목이 건물, 재정 이런 데 맞추어 지고 있는 것이다. 실상 교인 한 사람의 영혼 돌보기에 중점이 두어져야 하거만, 목사를 도와줄 평신도 동역자가 이런 일을 잘 보필해 주지 못할 경우 목사는 본연의 영적 목회보다 시설 등의 물적 목회에 매달리게 된다. 그러니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움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16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바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다. 한국교회도 재정과 시간의 투입을 물적 측면보다 교회 본연의 사람 살리기, 성숙한 교인 만들기, 영성과 선교의 깊이 더하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재정 지출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느냐는 그 교회가 얼마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정신적, 영적으로 지치고 실패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이 세상 속의 삶에서 상처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 본인의 잘못이든 아니면 이 사회의 잘못이건 이들이 바로 우리 형제요 자매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다. 교회라는 울타리 내에서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 낸다고 해서 기존 교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그렇지 않다. 그들이 교회외 출석하건 안하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비록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며 그들이 이미 악한 영들에 붙잡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누가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 줄 것인가? 이들을 위한 곳에 교회 현

금이 쓰여질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시설에 쓰여지는 것이건, 목사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든, 아니면 설령 고급 인테리어나 차량 유지에 쓰여지는 것이건 이들과 관련되어 질 때 그 돈은 축복받는 돈이 될 것이다.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는 이미 수없이 많다. 건축과 시설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교회 재정의 반이 넘게 들어가는 현실에서 건강한 교회라면 재정의 50%는 선교, 교육, 구제 등의 용도로 교회 외부로 흘러보냈으면 한다.

2. 부정적 얘기들을 대하는 균형 잡힌 시각 필요

비판자들의 부정적 얘기들이 흘러넘칠수록 교회와 기독교에 접해보지 않은 이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미지의 시대라고들 하는 데, 외부에서 말하는 시각이 실재를 마치 그런 것인양 그려내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지적하는 얘기들이 한편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점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은 잘못된 오해, 또는 한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한 점, 기독교 자체를 폄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실 왜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교회가 이런 저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듣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교회는 칭송받는 시기보다 폄박받는 시기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어려움과 박해받는 처지에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부정적 비판들이 비교적 덜하였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오히려 더 비판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 점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외부에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공격을 영적으로 놓고 보면 그 배후에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그의 선교 사역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고후 4:4)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배후를 다 알고 계시며 비판의 진정한 동기와 태도를 꿰뚫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악의적인 비판자들을 대적하거나 역공격한다고 해서 그들이 쉽사리 달라지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부정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으면 교회에 대해 어떠한 것들을 보더라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한 사실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인 것이다.

우리는 비판자들의 얘기에 초연해질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얘기에 전혀 귀 닫고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크리스찬들에게도 당연히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찌 비판론자들에 대해 일방적 심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많은 교회들의 속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들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어찌 일일이 구체적인 속사정들을 밝힐 수 있겠는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목사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면 회개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허물들에 대해 외부 비판론자들이 얘기를 하건, 아니면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건, 구약의 아모스, 미가와 같이 쓴 소리 하는 선지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 할 것이다. 단, 자신의 교만, 주관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을 바라보는 마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비판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비판하는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판적인 얘기란 늘 조심스러운 것이다. 얘기를 잘못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들만 일파만파 번져나가게 되고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얘기를 잘못하면 ‘너나 잘해!’라는 식의 얘기를 바로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이 땅에서 꼭 판단하거나 평가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병연,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C-', 목회와 신학 2008년 12월호, pp.111~115
- 통계청, '종교인구 통계', 2005년
- 한미준,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 보고서」, 한국갤럽, 1998
- 2006년 통계청 자료 기준
- 한미준, 「한국인의 종교의식 조사 보고서」, 한국갤럽, 1998
- George Barna, 「Revolution」 (Wheaton, IL : Tyndale House Publishers, 2005), p.33
- 황호찬, '재정 운영 투명성과 목회자의 세금 납부', 목회와 신학 2008년 7월호, p. 98
- 손병덕, '기독교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목회와 신학 2010년 4월호, p. 196.
- 교회신뢰 네트워크,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2007.5.18, p. 50
- 목회와 신학, '2008 전국 자원봉사 실태 조사', 2009년 1월호, pp. 110~113
- 교회신뢰 네트워크,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 2007.5.18, p. 51
- 목회와 신학, '한국교회 정직성에 대한 인식조사', 2008년 7월호, pp. 51~52.